

性 教 育

金 貞 泰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官·醫博)

‘性教育’에는 몇 가지의 特性이 있다. 그 첫째가 性教育에는 專門家가 없다는 사실이다. 性教育이란 바로 人間教育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어떤 각도에서도 접근이 될 수 있어 모두가 전문가일 수 있고 또 모두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의사가 담당하면 쉽게 의학적인 면에 치중을 한다고 한다. 또 교육을 심리학 전문가가 다루면 심리적인 발달·변화에 역점을 두어 다루게 되고, 신부나 목사가 이를 취급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연관이란 각도에서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性教育이 人間教育이라 한다면 이들이 총망라되어야 이상적임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性教育’이 갖는 特性의 또 하나는 性教育을 위한 자료는 외국의 그것들을 직수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性의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학 분야와 같이 쉽게 외국의 자료를 쓸 수는 없는 불편이 있는 것이다. 많은 수의 뜻있는 교사 또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 실정이다. 외국의 것을 복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의 실감이 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구하고자 원하기에 앞서 이들 性教育을 담당코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중요한 일이다. 교육자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키며 그런 연후에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에 따라 교육 효과는 크게 차이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靑少年 性問題는 ‘未婚母’라는 존재로부터 시작이 된 느낌이 있다. 청소년들의 性問題는 그 이전에 있어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에 관심을 갖기를 꺼려했음이 사실이다. 문제가 아직 커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파헤쳐 문제로 삼을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라 보여진다. 그래서 未婚母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시점으로 청소년의 性問題를 문제시하게 되었던 것인듯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혼모란 그 수가 많은 적든 청소년 성문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실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뿐인 것이다.

항간에는 인공임신중절이 다반사로 되고 있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중·고등 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만 되어도 우선 중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未婚母라는 양상으로 임신을 지속하는 경우란 극히 드문 특수한 경우 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튼 이것이 계기가 되어 性教育의 문제가 빛을 보게 된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또 性教育은 주로 여성에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 나라 性教育의 또

하나의 특색이기도 하다.

물론 여성 중심의 性敎育이라는 흐름은 이 이 유뿐만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性의 二重性 즉, 남녀간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二重의 基準이 엄연히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미혼 여성에게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데서 그럴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二重의 基準이 적용되고 있는 한 청소년들의 性問題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그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들에게 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二重의 基準은 남성에게는 극히 너그럽게 적용되는 사회의 규범인 것이다.

여성 위주의 性敎育은 여성에게 그들의 생리 현상과 임신 분만 등에 관하여 敎育을 시키고 있는데, 여성에게 남성의 생리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려고 하지는 않는 경향이다. 어느 외국의 예에서 性敎育을 하는데 부부의 또는 남녀의 성행위 부분은 항상 설명을 피하고 남녀를 이불 속에 넣어 놓는 광경으로 끝내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듯이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남성의 性生理에 관하여는 되도록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아직은 性敎育이 학교 敎育 과정에 정식으로 삼입되어진 바 없고 다만 시범적인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인 단계에서 학교에 있어서의 性敎育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性敎育이 그러하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하다고 할 수 있는 敎育계에서는 한층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짙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원래 남녀 생식생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는 남녀에게 남녀의 생리 현상을 다 가르쳐야 옳을 것이 분명하다. 여성에게 여성의 생리 현상을 가르치는 일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청소년 성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러므로써 올바른 性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리 현상보다도 상대방의 생리 현상을 앞으로써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性敎育이 특별히 문제시되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학교 과정 중 가정학 또는 생물학 시간에서 여성의 생리 현상인 월경이나 임신·분만 등에 관하여는 적당한 敎育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고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에 내려와 앉으면 착상이라 하며 이 때부터가 임신이다’라고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난자는 조금은 설명이 될 수 있어도 정자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문장 자체에 잘못은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것만으로는 남성이란 어떤 것, 여성이란 어떤 것이라는 분명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게 된다.

남성의 생리 현상에 대하여는 남성들에게도 별로 가르쳐지고 있지 않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짐작될 수 있다. 그런 것쯤이야 밥먹고 옷입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 것이고, 이런 일은 일부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을 것 또는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인데, 과거에는 과연 그럴 수 있었었다. 즉, 과거에 남성들은 性에 관한 지식은 주로 뒷골목에서 얻고 있었다. 친구나 선배들에게 흥미롭고 비밀스러운 일로 들려가며 전달 敎育을 받았던 것이다. 소위 自然傳授의 상태였다. 이렇게 알게 된 지식 속에는 誤識이 많다. 그러나 이런 방법 외에라면 성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창녀를 통해서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을 뿐이었다.

여하튼 남성들은 어느 연령이 되면 얻어 들은 지식이 많았고, 성에 관한 지식은 그렇게 얻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학교가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自然傳授’의 양상이 아이들의 학교 敎育의 양상이 바뀌면서 크게 바뀌었다. 즉, 학교 공부에 필요한 시간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많아져 아이들이 뒷골목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으나 여하튼 아이들의 시간이

부족해지는데 따라 이런 습성이 바뀌고, 따라서 이제는 남성들도 뒷골목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의 실정이 된 것이다. 알 수 있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알 것인데 이 점은 여성의 경우에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으로 보더라도 남녀 생리 현상은 정당하게 학교 과정에 삽입이 되어 각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현상을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의 性生理를 교육하는데 아직도 많은 주저를 하는 현상이 있는 것은 性의 죄악시의 태도가 불식되고 있지 못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자가 남성들 자신일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고 주저하게 되는 인상이다. 이에 비하면, 남성의 性生理를 알고 있지 못한 어머니들이 좀더 진지한 태도로 이를 배우려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性教育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최근의 청소년들은 열어들은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태보다 훨씬 뒤진 지식을 갖고 있든지 또는 틀린 지식을 갖고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서 안해도 될 걱정은 안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책임은 시급한 것이다. 또한 性教育의 문제가 문제시되면서 하나의 현상이 생겨나오고 있는 것이 있다. 즉, 교육의 책임이 시이소계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단 여러 가지 사태로 보아 성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 수궁은 하면서 그 책임을 학교는 가정에게 가정은 학교에게 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야 人間教育인데 마땅히 가정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데 대해,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야말로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쳐 주어야 옳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가르치느냐 하는 식의 상호 책임전가의 모습이다.

필요하기는 한데 잘 모르고 어렵고 한 데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가정이나 학교가 다 다루어 주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가정에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중요하

다. 지나치게 근엄하게만 하여도 아이들에게 이 중성을 보여 주는 일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의 관계란 이런 것이라는 모습을 교육적인 뜻에서 보여줌으로써 性을 나쁜 것, 부끄러운 것으로만 나타내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자녀의 교육을 학교 공부에만 두지 않는 성의를 나타내야 하는데, 모든 것에 우선하여 부부가 진정으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는데 家庭教育의 중요성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학비를 대서 학교에 보내면 그것이 전부고 필요하다면 돈은 얼마든지 낸다는 식의 금전만능의 태도 등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하물며 자신들의 性生活는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자극적인 책이나 필름 등을 향락한다는가, 또는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혼외정사 문제로 인해 가정 안에서 부부의 싸움이 잦다면 교육은 완전히 역행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언제까지나 사전에 딸려다니며 뒷수습을 하는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또 예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용기를 가지고 직시하는 자세에서 이 젊은이들의 장래에 가르치지 않았기에 생겨야 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문제란 거의 문제가 먼저 있고 이의 대책이 강구되는 식으로 그 과정이 발달되어 나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미리 가르치지 않아서 불행해져야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역사가 가슴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일 것이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성의를 다하여 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모를 위한 교육도 되도록 학교가 이를 책임져서 부모의 자각심을 촉구시킬 수 있도록 성의있는 배려가 바람직하다. 그것은 말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의 연장이기도 할 것이고 동시에 사회를 지도하기도 하는 진정한 뜻의 교직자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性教育의 과도기를 사는 지도자에 대한 부탁이기도 하다. ☒